

신안전 교구재 공유 사례를 통한 중앙-소속박물관 협력 모델 모색

김서영 前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I. 문제의 제기

II. 국립박물관 교육 협력의 필요성

III. 중앙박물관-광주박물관新安전 연계 교육프로그램 교구재 공유 사례

1. 교구재 대여-차용 배경과 진행 과정
2. 광주박물관 '新安선이 들려주는 이야기' 교육 운영 성과 및 시사점

IV. 지식 공유 차원에서의 국립박물관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1. 지식 공유의 개념
2. 지식 공유 차원에서의 협력 모델 모색

V. 결론

신안전 교구재 공유 사례를 통한 중앙-소속박물관 협력 모델 모색

I. 문제의 제기

평생학습시대¹⁾를 맞아 박물관 교육의 위상과 그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박물관 교육의 개념이 도입되고 국립박물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국립박물관의 교육담당자들은 박물관 교육의 발전과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과 열정을 쏟아 왔고, 그 결과 많은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다.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박물관 교육은 단지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발전을 위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은 이제 체계적인 제도의 확립과 개선을 통해 더욱 더 완성되고 심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관람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론의 도입과 연구, 질적으로 완성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은 국립박물관 교육 담당자의 역할임이 분명하며, 그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국립박물관 교육사들 간의 실질적 협업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역박물관의 교육 인력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숫자와 규모에 비하여

1) 평생교육법 제2조에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평생교육의 범주에 포함됨으로써 박물관 교육은 법적으로 평생교육의 영역에 속한다.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은 일정한 시간과 인력의 투입이 필수적인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 과정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혹 공들여 개발한 콘텐츠와 개발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많은 정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이를 타 박물관 교육관계자들과 원활히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국립박물관 교육의 질적 동반 성장과 이를 위한 관계자간 실질적 협력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현 시점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2016년 종료된 국립중앙박물관 발굴 40주년 기념특별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이하 신안전)”(2016. 7. 26. ~ 2016. 9. 4.)의 지방 순회전의 일환으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개최된 동 전시(2016. 10. 25. ~ 2017. 1. 30.)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교구재 공유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들 간의 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모델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국립 박물관 교육의 증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협력 모델을 모색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박물관협력망²⁾”이라는 포괄적 개념의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고찰이다.

II. 국립박물관 교육 협력의 필요성

국립중앙박물관은 1960년대 초에 전체 박물관 소장품 점검 및 현황 정리를 통해 본격적으로 소장품 관리를 시작하였고 그 목록을 간행하였으며 1990년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박물관 소장품 자료의 전산화와 함께 표준 분류와 용어집, 시소러스의 개발과 관련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물관에 대한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양적으로 증가하며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며 박물관 소장품을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데이터 요소에 관련된 연구들과 박물관 소장품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여러 구체적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물관 간 협력체제에 대한 이러한 논의와 결실들은 일반적으로 전시, 소장품에 대한 정보 공유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으며 매년마다 개발되고 활용되는 교구재들과 학습자료 및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등 박물관 교육 결과물들에 대한 전산화와 체계적 정보 공유는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2005년 용산 이전 이후 국립박물관의 교육이 체

2) ‘박물관협력망’이란 “박물관간 상호협력 및 정보자료 공유로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Off-line 및 On-line 시스템을 총칭한다”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협력망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2006).)

계화되고 더욱 다양한 대상층으로 확대되어 박물관 교육의 전문화가 본격적으로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수요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들(전문가, 초등, 청소년, 가족 등)을 대중들이 국내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시스템이 우선 요구되며, 또한 국립중앙박물관과 14개 지역 소속박물관 교육 담당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열람할 수 있는 교육 자료 검색 DB 내부망이 도입·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 이는 교육 협력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통해 국립박물관 교육 담당자들이 유무형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상호 교류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 극대화 및 국립박물관의 동반성장, 무엇보다 양적 팽창이 아닌 국립 박물관에 요청되는 질적으로 완성된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획과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박물관 분야에서 협력망Cooperative Network에 대한 연구는 소장품이나 정보화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박물관 교육의 협력망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그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박물관 교육 협력과 네트워크를 주제로 하는 연구³⁾와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변화하는 박물관 교육 시대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III. 중앙박물관-광주박물관 신안전 연계 교육프로그램 교구재⁴⁾ 공유 사례

본 장에서는 국립광주박물관의 주말 가족 대상 프로그램 ‘토요일! 토요일은 박물관’의 교구재 대여 진행 과정과 대여 교구재 활용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제기한 국내 국립 박물관 교육과와 소속박물관 간 교육프로그램 교구재 공유 협력의 첫 사례이다. 이 사례의 소개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까지 국내 박물관 교육 협력의 방식을 실효성이 낮고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공동 기획 및 공동 개발 및 협업으로 주로 접근하던 방식이 아닌 개발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 모델이다. 이를 통해 국립박물관

3) 국내외 국립박물관 교육 협력의 사례에 관해서는 양건열, 『국립박물관 교육의 방향과 발전 방안 연구』(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를 주로 참고하였다.

4) ‘교구재’란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는 아니며 명사로 교구(教具)란 ‘학습을 구체화·직관화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 칠판, 패드, 표본, 모형 따위이다.’라 정의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영문으로 ‘educational aids’, ‘learning material’, ‘teaching tools’등으로 문맥에 따라 혼용 표기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 또한 ‘교보재(敎輔材)’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 정의에 따르면 이는 ‘교육 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를 이르는 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한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관 간의 참여와 역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지식 공유의 성과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높아지는 관람객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완성된 교육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협력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국립광주박물관 간 이루어진 개발 교구재의 성공적 공유⁵⁾ 사례 소개를 통해 그 성과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개발 지식 공유의 측면에서 국립박물관 교육의 발전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함에 있다.

1. 교구재 대여-차용 배경과 진행 과정

국립광주박물관은 2016년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해 보는 기획특별전 '신안해저전에서 찾아낸 것들'(2016. 10. 25. ~ 2017. 1. 30.)을 국립중앙박물관의 동 전시(2016. 7. 26. ~ 2016. 9. 4.)의 순회전으로 중앙박물관의 전시가 마감된 시점에서 약 한 달여 후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한다는 점과 신안선 문화재와 광주박물관의 개관 연관성을 부각한다는 취지에서 열리는 순회전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광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지금까지의 특별전시 규모 중 최대 전시(신안 19471 청자 솔형 향로 등 1만여 점)라는 점에서 전시 준비는 중앙박물관 아시아부와의 목록 협의 및 운송, 포장 및 해포작업과 인테리어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개최 때까지 매우 촉박하고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1) 중앙박물관 신안선 연계 가족프로그램 '신안선의 보물을 찾아서' 교육 참관

광주박물관에서 신안선 교구재 대여 작업을 진행한 주말 가족 대상 프로그램 '토요일! 토요일은 박물관'은 연중 진행되는 특별전시와 연계하여 매달 1·주 토요일 14:00 ~ 16:00에 진행하고 있으며 전시기획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강의 자료를 만들고 연계 체험 활동을 구상하고 재료 등을 준비한다.

신안선 연계 교육의 준비와 구상을 위하여 광주박물관 교육 담당자는 중앙박물관의 신안선 개막식을 관람하였고 광주박물관 교육팀은 2016년 8월 13일자에 진행된 중앙박물관 신안선 연계 가족프로그램 '신안선의 보물을 찾아서'를 해당 교육 담당자와 사전 연락 후 일정을 잡고 전 과정(총 2시간 40분)을 동행하며 참관하였다. 중앙박물관의 신안선 연계 가족프로그램 '신안선의 보물을 찾아서'는 2016. 7. 30. ~ 8. 27. 의 기간 동안 총 9회 진행되었다.

5) 본 사례에서의 공유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원'이라고 하겠다.

표 1. 중앙박물관 가족프로그램 '신안선의 보물을 찾아서' 교육 진행 모습

| | |
|--|---|
|  |  |
| 이론 학습 | 수중발굴 체험활동 |
|  |  |
| 전시실 탐방 | 청자 빚기 |

2) 교육 자료 지원

교육 참관을 위해 방문한 교육팀에게 중앙박물관 가족 교육프로그램 담당자는 중앙박물관에서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사용된 거의 모든 자료(프로그램 학습지도안, 수업 PPT, PPT 글씨체 Font, 일러스트, 교육 음원, 신안선 활동지, 교육용 애니메이션 DVD, 관련 영상 등)를 현장에서 전달하였다. 담당자와 연락하여 유선 상으로 방문 전 미리 논의하여 요청한 바이긴 하였으나 중앙박물관 교육과 측에서는 사전 논의된 내용 이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사용된 교육 자료와 체험 교구재 재료 구입처를 명시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와 함께(표 2, 표 3) 교육 전 과정의 자료를 참관 당일 광주박물관 교육팀에게 제공하였다.

표 2. 중앙박물관 교육과 측으로부터 받은 교육 자료 구입처 목록

| 연번 | 목록 | 구입처 |
|----|----------|---|
| 1 | 리빙박스 | 창신리빙 www.changsinliving.com |
| 2 | 바다모래 | 11번가 www.11st.co.kr |
| 3 | 후추상자 | 퍼니맨 www.funnyman.co.kr |
| 4 | 청동순가락 | 옥션 www.auction.co.kr |
| 5 | 목간 | 자체 제작 |
| 6 | 청자 파편 | 자체 제작 |
| 7 | 동전(송녕중보) | 자체 제작 |
| 8 | 지단목 | |
| 9 | 복숭아씨 | |
| 10 | 라텍스 장갑 | |

표 3. 중앙박물관 교육과 측으로부터 받은 교육 관련 자료 목록

| 구분 | 세부 내용 |
|-----------------------------------|--|
| 특별전시 [신안해저전에서 찾아낸 것들] 전시 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시기획(안) 2. 전시출품목록 3. 전시실도면 4. 신안 참고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박물관 신안실 영상 - MBC 다큐멘터리 700년 전의 약속 - 신안유물 다큐영상 |
| 교육프로그램 자료 [신안선의 보물을 찾아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운영계획 2. 프로그램 학습지도안 3. 수업 PPT 4. 수업활동지 (PPT/PDF) 5. 안내 입간판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선 애니메이션 - 자료배포용 (마도4호선) 2. 전시실 사진 |

3) 교구재 대여 진행

광주박물관 교육팀은 교육 참관 현장에서 수증발굴체험활동을 위한 신규 개발된 교구재 대여 가능성 및 제작 과정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구두 문의하였고 이후 유선 협의 진행 과정에서 중앙박물관 교육 담당자는 관련 문서를 요청하였다. 이에 2016년 9월 30일 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발신명의로 차용 요청 문서를 국립중앙박물관장(교육과장)을 수신으로 하여 ‘차용 교보재 목록’을 첨부한 문서 시행을 완료하였다. 이때 첨부된 차용 물품 목록은 사전에 중앙박물관 담당 연구원에 의해 정리되어 광주박물관 측에 전달된 목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차용 요청 교보재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4) 이후 2016년 10월 5일 광주박물관 직원 2인이 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교육과 연구원들에 의해 사전 꼼꼼하게 포장된 해당 교보재들을(바다모래가 담긴 리빙박스 15개 등 9건 157점) 인수 현장에서 목록 확인 후 운송 차량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교구재 대여 절차가 완료되었다.

표 4. 교보재 차용 요청 문서에 첨부된 “차용 희망 교보재 목록”(2016. 9. 30. 광주박물관 시행문서)

| 연번 | 명칭 | 수량 | 사진 | 비고 |
|----|---------|----|--|----|
| 1 | 리빙박스 | 15 |  | |
| 2 | 후추 나무상자 | 16 |  | |
| 3 | 후추 지퍼백 | 15 | | |
| 4 | 자단목 | 16 |  | |
| 5 | 목간 | 16 |  | |

| 연번 | 명칭 | 수량 | 사진 | 비고 |
|----|----------|-----|--|--|
| 6 | 동전(송녕중보) | 19 |  | 4묶음 |
| 7 | 청동수저 | 12 |  | 모양이 모두 다른 온전한 것 - 8개 일부 훼손된 것 - 4개 |
| 8 | 복숭아씨 | 28 |  | |
| 9 | 청자 조각 | 20 |  | 화병 - 8개 물소 - 6개 향로다리 - 6개 |
| 계 | | 157 | | |

2. 광주박물관 ‘신안선이 들려주는 이야기’ 교육 운영 성과 및 시사점

2016년 한 해 동안 국립광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총 6개 분야, 26종으로 총 320회 운영되었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6종 80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4종 45회, 성인 대상 프로그램 7종 88회, 외국인·가족 대상 프로그램 5종 46회, 희망 계층 대상 프로그램 2종 36회, 수요자 요청 프로그램 2종 6회로 교육 참여 총인원은 25,614명이었다. 박물관 협력망 사업으로는 광주광역시 박물관미술관 협의회 6개 기관이 참가하고 광주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기획 운영하는 ‘Go, Go! 인문학 - 박물관·미술관을 탐(探)하다’가 8월 2회, 11월 1회 운영되었고, 광주 고려인마을 새날학교 아동 및 지역소외계층 아동 총 90명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교육 운영의 성과는 지난 십여 년 간 소속박물관에 전담 교육사가 배치된 이후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자리잡아 온 결과이다. 사회적 흐름의 변화와 박물관의 ‘이용자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및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중앙박물관 및 전 소속박물관의 교육 인력은 연중 박물관 소장품 및 문화 자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행·평가하고 교육 관련 인적자원과 재정

자원의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 하지만 박물관 교육의 급격한 양적 증가와 대상층의 확대로 인해 소속박물관의 경우 제한된 내부 인력과 자원으로 연중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자체 신규 개발하여 운영하는 데에 물리적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본 장에서 소개하는 사례와 같이 내용이 거의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성격의 전시가 진행될 경우에 이미 기존에 개발된 교재나 교구재 혹은 교육 리소스를 지원받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중복되는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수준 높은 문화 체험 기회를 해당 지역의 교육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한 신안전 연계 교육 ‘신안선의 보물을 찾아서’의 개발 경험 지식 및 자료를 공유한 광주박물관 교육 ‘신안선이 들려주는 이야기’ 운영 사례에 관한 성과를 밝히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성과

그동안 광주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지역민들에게 높은 인지도와 대중성을 확보하였다. 주말 가족 프로그램인 ‘토요일! 토요일은 박물관’ 주말 가족 프로그램 또한 이미 지역민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광주박물관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교육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구재의 개발이 부족하고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이며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에 비해 이루어지는 내용과 콘텐츠가 정체되어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활용이 완료된 중앙박물관의 완성된 교구재(물질적 자원)와 교수학습 자료(비물질적인 지식 자원)를 간단한 절차와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지원 받아 공유하고 100% 재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지역민들에게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과와 의미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실시한 설문지 분석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라는 항목에 대하여 ‘매우 만족’이 71%, ‘만족’이 19%로 전체 응답자의 90%를 차지하였고 “앞으로도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로 답변한 비율이 83%,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17%로 전체 응답자의 100%를 차지하였다. 이 수치는 교육 참가자들의 현장에서의 높은 만족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6) 2017년도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체험관팀과 교육팀은 광주박물관 상설 및 특별전시에 특성화된 교육 자료와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대내외 자료 수집 등 체계적인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1. '신안선이 들려주는 이야기' 교육 누리집 모집 공고 포스터 이미지 (중앙박물관 교육과 제공 일러스트 활용)

표 5. 광주박물관 가족 교육프로그램 '신안선이 들려주는 이야기' 교육 진행 모습

| | |
|------------|-----------|
| | |
| 이론학습과 영상시청 | 수중발굴 체험활동 |
| | |
| 전시실 탐방 | 향로 만들기 체험 |

2) 시사점

‘신안선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교육 개발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른 교육프로그램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보통 교육프로그램 개강을 준비할 경우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기도 하고, 접근 방식을 달리하기도 하며 반응이 좋았던 경우 때로는 예년도 커리큘럼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도 한다. 반면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기획하여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자료 수집 과정부터 시작하여 개발 및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⁷⁾ 그러나 본 교육의 경우 “수중발굴체험”이라는 새로운 체험 아이템과 방식이 도입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성된 교구재와 학습 자료를 제공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 준비 기간은 현저히 단축되었다.

신규 개발과 제작의 시간을 줄이는 대신 중앙박물관의 전시 내용과 그 순회전으로 개최되는 광주박물관의 전시는 그 구성이 다르고 또한 전시품 목록과 수량 및 전시실 동선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 세부 내용(강의 PPT, 활동지 내용 구성 등)은 광주박물관의 전시에 맞추어 변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수중발굴체험에 사용되는 교구재 종류를 추가(청동 손가락, 바둑알, 주사위)하였고 활동지 내용과 구성도 항로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에 비중을 두어 변형·추가하였다.

‘신안선이 들려주는 이야기’ 마무리 활동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안선이 들려주는 이야기**

▶ 신안선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발견·발굴되었을까?

신안해저선의 발굴은 1975년 8월 전남 중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약 20m 깊이의 바다 아래에는 침몰된 배 아래 부분의 조각들과 2만 4천여 점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보호해주어 지금까지 큰 훼손 없이 우리가 발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아래 유물을 보면서 부모님과 함께 오늘 배운 신안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날짜: 이름:













자, 이야기가 끝난 친구들은 뒷장으로 가볼까요?

도 2. ‘신안선이 들려주는 이야기’ 마무리 학습 활동지

또한 교구재 공유를 통해 경험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해당 지역의 교육 참여자들에게 다채롭고 수준 높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람객 입장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수해박물관인 광주박물관의 교육 운영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타 기관의 구성원들이 교육 진행을 참관하고 완성된 교육 자료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접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이해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단지 교육 자료 및 교구재를 전수 또는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서 타 기관의 콘텐츠를 광주박물관의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고민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내재화하여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접근하였을 때 장기적인 유의미성은 더욱 크다고 여겨진다.

‘신안선이 들려주는 이야기’ 교육은 2016. 11. 5. ~ 2017. 1. 21. 기간 동안 1·3주 토요일에 진행하여 총 6회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현재 광주박물관에서는 “흙으로 빛은 조선의 제기”(2016. 12. 6. ~ 2017. 4. 2.) 특별전이 중앙박물관 전시 종료 후 순회전으로 연이어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한 해 동안 국립광주박물관의 특별전은 총 5건으로 내부 기획 전시 2건, 중앙박물관 순회전 3건이 운영되며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광주박물관 교육팀은 이러한 일정에 따라 특별전시 연계 교육을 준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표 6). 앞으로 순회전시가 늘어나고 혹은 권역별 합동 전시 등이 추진되는 등 박물관 네트워크 및 협업 체제가 강화될수록 이러한 박물관 교육 자료 및 교구재 현황 등에 대한 지식 공유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그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2017년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시 연계 교육 ‘토요일! 토요일은 박물관’ 추진 일정

(순회전시 * 표)

| 전시명 |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 *흙으로 빛은 조선의 제기 | 흙 속에서 발견한 역사의 조각들 | 마음이 곧 부처 - 호남 불교미술의 정수 | *왕이 사랑한 보물 -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명품전 |
|-------|-------------------------|---------------------------|---------------------------|------------------------------|--------------------------------|
| 전시 일정 | 16.10.25. ~17.1.30. | 16.12.6. ~17.4.2. | 17.5.2. ~17.7.9. | 17.8.15. ~17.10.22. | 17.12.4. ~18.3.25. |
| 교육 일정 | ~ 1/7, 1/21 | 2/4, 2/18, 3/4, 3/18, 4/1 | 5/6, 5/20, 6/3, 6/17, 7/1 | 8/19, 9/2, 9/16, 10/7, 10/21 | 12/16 ~ |
| 운영 시간 | 14:00~16:00 (2시간) | | | | |
| 대상 | 초등학생 동반 가족 | | | | |
| 운영 | 주강사 1인, 보조강사 1인, 연구원 1인 | | | | |

7) 2017년도 광주박물관에서 신규 개발하여 4월부터 실시하는 유아 대상 프로그램 ‘쑹! 문화재 속으로’의 경우 개발 기간은 12월 말부터 시작하여 전문 강사와 5차에 걸친 개발 회의, 디자인 업체와 4차에 걸쳐 미팅을 진행하였고 3월 말 최종 리허설 실시를 마지막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IV. 지식 공유 차원에서의 국립박물관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앞선 논의와 함께 본 장에서는 이번 중앙박물관-광주박물관 간의 신안전 교구재 공유의 사례가 일회성 물품 지원 사업 형태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본 교구재 공유 사례는 순회전이라는 분명한 동기를 통하여 선행 전시가 이루어지는 박물관에서 운영되는 교육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직접적인 계기를 갖게 됨으로써 해당 기관에서 무엇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 인지하고 면밀히 관찰하고 내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지식 공유의 개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은 다양한 학습지 등 교육 자료들을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하고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는 서봉균의 연구⁸⁾에 따르면 외부적 지식 공유External Knowledge Sharing의 형태로서 지식 공유에 관해 내부적 지식 공유Internal Knowledge Sharing와 외부적 지식 공유External Knowledge Sharing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표 7)

표 7. 지식공유 유형 및 주요 활동⁹⁾

| 분류 | 개념 및 활동 |
|-----------|--|
| 내부적 지식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 개발 사업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직 내의 지식 공유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 · 내부적 지식관리: 문서의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등 정보인프라 구축, 조직 내 지식 공유를 위한 세미나 등 활성화, 학습을 통한 조직 내 개발 역량 강화 등 · 연구 개발: 개발협력 기관들이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목적 |
| 외부적 지식 공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외부의 파트너 및 주체들과 개발 지식을 상호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 · 남북 협력: 전문가 파견 등 컨설팅, 원거리 학습E-learning, 기술지원, 연수와 유학 · 개발도상국 간 지식공유: 남남협력, 삼각협력 |

8) 본 장에서 지식공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서봉균(2011) 「개발협력 분야 지식공유의 흐름과 국제사회 개발협력기관들의동향」 KOICA 정책개발포커스를 참고하였다.

9) 서봉균, 위의 글(2011), p.34.

지식 공유의 유형을 위와 같이 크게 구분하면서 서봉균은 내부적 지식 공유를 활성화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외부적 지식 공유라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수혜국의 역량 개발과 효과적인 개발협력의 성과를 위한 노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외부적 지식 공유와 내부적 지식 공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최근 국제 개발 기구들도 지식 공유를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지식 공유에 대한 개념을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모두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 협력에 대한 개념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표 8. 주요 기관별 지식공유의 개념¹⁰⁾

| 기관 | 주요 개념 |
|------------------------------------|---|
| 세계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와 경험을 통한 지식의 체계적 습득 · 조직화와 축적을 통한 지식과 정보에의 원활한 접근 · 상호 교환을 통한 지식의 전수와 전파 |
| UND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가 해석되고 사용될 때 이를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식의 공유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보를 사용(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 |
| G20 개발 실무그룹 Working Gro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국가에서 적용되고 증명된 개발 모델과 해결책들의 공유 · 개발 전문성 및 근거중심Evidence based* 공공 정책과 관련된 가치있고 문서화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 개인, 조직, 사회가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 |

서봉균의 연구에서 지식을 이익창출을 위한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축적하여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경영 기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장에서 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개발 경험에 관한 지식 공유의 차원이란, 지금까지 국립박물관이 축적해 온 많은 교육 노하우들과 내부적 관련 경험 정보 및 유무형의 자료에 대하여 수요가 있는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 담당자 모두를 주요 참여 주체로 하여 쌍방향 역량 강화를 통해 해당 지식을 내, 외부 환경에 적합하게 재창조하여 획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서봉균, 위의 글(2011), p.33.

2. 지식 공유 차원에서의 협력 모델¹¹⁾ 모색

A 박물관에서 2017년도에 A1 이라는 교구재와 학습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였고 이것의 사용이 종료되어 현재 A 박물관 창고나 담당자 PC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A1 교육 리소스가 몇 년간 사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 타지역의 박물관 담당자가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을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앞서 언급하였듯 국립중앙박물관은 1990년대 이후 박물관 소장품의 본격적인 전산화 작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2년에는 자체 개발한 유물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장 유물 12만여 점을 입력 완료하였다. 이후 1995년에는 국립박물관 통일안인 ‘박물관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표준화 방안’을 만든 바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전문가 위원단의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유물 분류 표준의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표준화와 전산화 등록 작업을 통해 현재 국내 국립박물관 관련자(학예연구사 및 업무 관련 연구원)는 인증 절차 후 내부망에 접속하여 신속하게 소장품 정보와 현재 상황 검색을 진행함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박물관 정보화에 따라 소장품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반면 국립박물관 교육 업무의 관련자들에게는 이러한 내부 지식 자료 공유를 위한 체계적 내부망이 부재한 실정이다. 박물관 교육 내부 지식 공유의 범위란 단지 교육 자료나 교구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박물관 교육이 점차 전문화·세분화 되어 가면서 에듀케이터와 협력하여 교육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도 공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¹²⁾

본 장에서는 장 서두에서 가정한 상황이 가상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혹은 미래에 얼마든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최소화하고 재능 있고 유능한 많은 관련자들의 노력으로 축적된 교육 관련 자료의 보존과 관리,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 공유 차원에서의 협력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박물관 교육 담당자들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제도 혹은 원칙과 함께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선 장에서 밝혔듯이 “지식의 공유”는 “지식의 관리 기법”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11) 모델이란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화한 것을 의미한다.

12)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세분화되어가는 전문 강사 인력에 대해서도 국립박물관 간 체계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첫째, 현물 형태의 교구재의 표준화, 목록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7년 초에 중앙박물관 교육과에서 ‘찾아가는 박물관’ 복제전시품을 목록화하여 소속박물관에 이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여한 사례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나 사용되지 않는 교구재들의 목록화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구체적인 사례라 하겠다. 또한 체계적인 목록 작업을 위하여 항목 분류를 위한 표준을 마련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이후 코드화, 전산화 작업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전산화와 표준화의 노력들이 박물관 소장품에만 국한되었다면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박물관의 다양한 교구재도 소장품의 범주로 보는 인식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작업은 더욱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표 9. 중앙박물관 교육과에서 작성한 ‘찾아가는 박물관’ 복제전시품 현황표

■ 찾아가는 박물관 전시용 복제유물 제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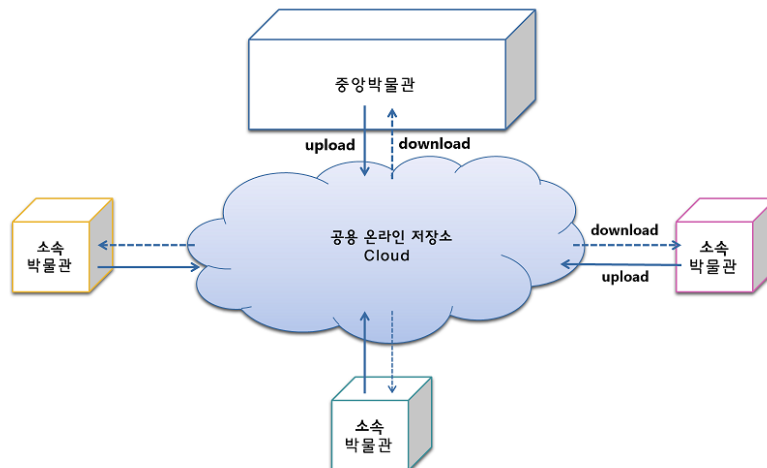
| No | 전시주제 | 건 / 점 | 제작년도 | 비고 |
|----------------|--------------------|---------|-----------|----|
| 1 | 고인쇄문화발달사 | 5건 10점 | 1992 | |
| 2 | 선사인의 돌문화 | 31건 57점 | 1995 | |
| 3 | 신라토우 | 28건 68점 | 1996 | |
| 4 | 백제금동대향로 | 7건 8점 | 1997 | |
| 5 | 천마총 | 17건 35점 | 1998~2015 | |
| 6 | 백제문화의 신비 무령왕릉을 찾아서 | 30건 46점 | 2002 | |
| 7 |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 28건 74점 | 2005 | |
| 8 | 교과서 속의 박물관 I | 47건 73점 | 2011 | |
| 9 | 교과서 속의 박물관 II | 7건 9점 | 2013~2015 | |
| 총 9종 200건 380점 | | | | |

■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용 전시패널 현황

| No | 주제 / 내용 | 수량 | 제작년도 | 비고 |
|----------|--|-----|------|----|
| 1 | 『조선시대 그림과 글씨』 - 교과서에 나오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그림과 글씨 | 35점 | 2003 | |
| 2 | 『고구려 고분벽화』 - 세계문화유산등재 기념 고구려 유적 및 고분벽화 사진 패널 | 41점 | 2005 | |
| 총 2종 76점 | | | | |

둘째, 비물질적 형태의 교육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의미하는 비물질적인 형태의 교육 자료란 교육의 기획과 운영 과정에서 형성 또는 파생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텍스트는 물론 PPT, 이미지, 사운드, 일러스트,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들의 내부 관리는 공유 이전에 매우 중요하다. 조금만 소홀히 한다면 쉽게 분실되거나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들은 현물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개발된 귀중한 자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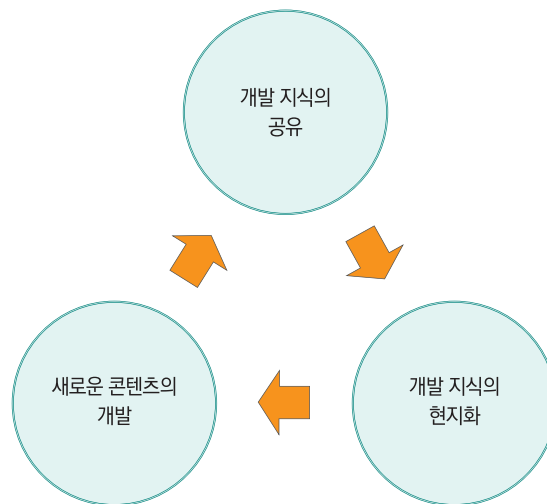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중앙박물관과 13개 소속박물관의 교육 담당자들이 이러한 물질적 형태의 교구재 목록과 비물질적인 형태의 교육 자료들을 저장·관리·공유할 수 있는 대용량의 저장 가능한 서버, 대규모의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온라인 플랫폼 형식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형식의 내부망이 구축된다면 내부 지식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저장 및 공유될 수 있는 대용량 박물관 교육 콘텐츠 저장소가 형성될 수 있으며 박물관 교육의 온라인 수장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클라우드가 형성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대용량의 저장 공간과 빠른 입출력 성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제 광주박물관의 교육 담당자는 인증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춘천박물관의 교육 자료와 교구재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중앙박물관에서 제작한 자유학기제 진로 관련 영상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주박물관 특별전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교수학습지도안을 확인할 수도 있다.



도 3. 중앙-소속박물관 교육담당자 간 온라인 지식공유모형

V. 결론

박물관 교육이 국내에서 시작되고 대중화되며 현재에 이른 지금, 국립박물관의 교육적인 역할과 성격은 더욱 확장되고 다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많은 성과와 자리매김을 이루어 낸 국립박물관 교육이 양적인 성과보다는 질적인 동반 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광주박물관 신안전 교구재 대여 사례의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 간의 교육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신안전 교구재 공유 사례를 통하여 본 연구는 국내 박물관 교육의 발전에 있어 국립박물관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노하우와 유무형의 교육 자원, 풍부한 유물자원 및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전문성이 강화된 질적 동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최근에 성공적으로 종료된 신안전 교구재 공유·활용 사례와 그 성과 및 시사점을 통하여 본 사례를 단순 물품의 공유의 차원이 아니라 지식 접근을 통한 또 다른 지식의 내재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고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의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그 결과를 모형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도 4. 지식 공유의 과정

또한 본고에서는 서봉균의 논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내부적 지식 공유를 활성화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외부적 지식 공유라는 점에서 외부적 지식 공유와 내부적 지식 공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내부적 지식 공유는 ‘지식 관리’에 대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의 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세 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상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몇 가지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은 당장에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국립박물관이 국내 박물관 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표성과 선도성을 고려할 때 정보 공유의 기반과 체제의 구축은 국립박물관 조직 내에서 교육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박물관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운영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들이 진행되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강구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협력망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2006.
- 국성하, 「국립박물관 체제 형성과 박물관 내 교육의 변화」, 『한국교육사학』35, 한국교육사학회, 2013.
- 권영득,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사례로 본 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 박물관교육과 유물정리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물관교육연구』1, 한국박물관교육학회, 2007.
- 박재용, 조윤희, 「도서관/박물관 협력체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38, 한국문헌정보학회, 2004.
- 백 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예경, 2005.
- 서봉균, 「개발협력 분야 지식공유의 흐름과 국제사회 개발협력기관들의 동향」, 한국국제협력단, 2012.
- 양건열, 『국립박물관 교육의 방향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양현미,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이수진, 『박물관 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교육적 의미 분석: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4.
- 조윤희,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 『한국비블리아』19, 한국비블리아학회, 2008.

Abstract

Building a Collaborative Model between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Affiliated National Museums through Sharing of Educational Resources: Focusing on the Case of *Discoveries from the Sinan Shipwreck* Exhibition

Suhyoung Kim

Former Museum Educator, Gwangju National Museum

The study aims to realize the mutual growth of educational programs within national museums, to find a model for building a substantial cooperative system among personnel at this point when the role and function of museum have expanded and diversified, and ultimately to propose the medium- and long-term direction for education in national museums who lead the nation's museum education. This paper introduces a special exhibition, The 40th Anniversary of the Shinan Shipwreck Excavation hel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during July 26 ~ September 4, 2016 and its travelling exhibition at the Gwangju National Museum in October 25, 2016 ~ January 30, 2017 and the successful sharing of educational materials. In particular, the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process and outcome of sharing materials not from the perspective of one-time exchange but from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sharing among museum educators and to suggest its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ree stages of building an education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other national museums.

Keywords: National Museum, Museum Education, Mutual Growth, Knowledge Sharing, Cooperative System Building